

신행수기 당선작 (진홍원이사장상)

사십법을 애인삼아 ②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이렇듯 어설피게 시작한 직장 생활이지만 성실을 밑천으로 꾸준히 일을 하여 나중에는 보증수표란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원은 고정 급여가 없다.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자연히 수입도 올랐다 내렸다 하여 늘 안정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낮에는 직장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사를 찾아가서 철야기도를 자주 했다. 처음은 삼백배 그 다음은 오백배 한때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절을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현까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을 굳게 믿었지만 남편의 병세나 우리집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차츰 낮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 절에 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밤을 지새워가면서 예배를 올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이니 결국은 참된 행복을 공경하고 무명(無明)을 극복시키는 일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전생에 지은 죄가 무거워도 조금은 소멸이 되겠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내마음 한 구석은 언제나 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꽂혀있었 같다. 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마음 가는대로 살아보자' 혼돈을 거듭하는 동안 차츰 신행생활도 익숙해져서 나는 무엇보다 부처님의 교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항상 바쁘게 살다보니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시간이 없어 생각끝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불교와 관계되는 서적을 읽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한 나는 수급 가방속에 언제나 책 한권을 들고 다녔다. <선가귀감(법정스님 역)>, <유마경 강설(이명무스님 역)>, <소설 화엄경(고은 작)>, <원효대사(이광수님 작)>, 그밖에 불교설화집 등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절에 다니지 않던이 지난후에야 겨우 나의 현실은 과거생에 지은 업장 때문이며 내가 겪는 이 시련도 결코 남이 대신 할

남편의 병세나 우리집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이 무엇일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지만... 밤새워 예배올리는 것은 자기 낮추는 하심의 자세 지은 죄 조금은 소멸되겠지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엔 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짙차 있었다

낮에는 직장일 밤에는 철야기도를 했다 나의 현실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이며 결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수 없는 내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1981년 그해는 나라가 어수선했다. 자고나면 데모군중에 최루탄 가스가 현지를 뒤덮을때 우리집 사정도 나라 사정만큼이나 복잡했다. 그해 장남은 어느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해야했고, 딸은 대학 4학년에 올라가고 막내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지지고 볶는 학순환 속에 서로 아무 말없이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요즘은 나의 몸이 지꾸만 쇠약해진다. **시** 풀이 어수선했어 학생 아르바이트도 허용이 안되고 보험 세일즈맨은 팔바닥이 닿도록 다녀야 성과가 있는데, 나는 그때 10보만 걸어도 허리가 부서지듯 아프고 길을 걷다가도 주저앉아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고 아프며 머리가 자주 어지러워서 할 동에 큰 자질이 왔다. 하루걸러 한번씩

쉬어야 하니 너무도 안타까워 불안했지만 가족들까지 불안하게 할수 없어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는 세 아이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도무지 알아 안보였다. 나는 건강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어코 산사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매달려 보리라' 하며 한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랜만에 산을 올랐다. 제갈마다 특색이 있는 삼각산의 새소리 바람소리는 나의 험겨운 산행을 도와 주듯 한결같이 동행해 해주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숲사이 오솔길은 내가 어려울때 가장 많은 위안을 받은 내마음의 고향같은 곳이기도 하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법당에서 나는 혼자 편안할 자세로 앉아 주력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살을 때리며 지나가는 스산한 바람소리마저 좀 으스스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신장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다. 지난밤 꿈에도 몸이 너무 아파 끔찍할때 잠이 들었는데 법당에서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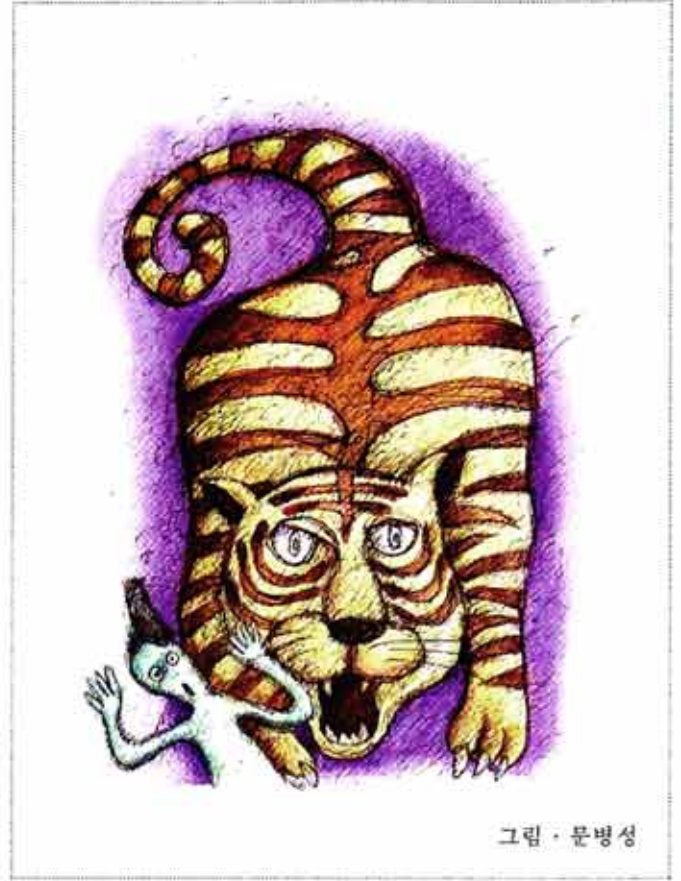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었다. 소방차에게는 직진을 지시하고 호랑이에겐은 길 건너편을 가르키니 순순히 따라 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 중년의 남자는 아마 그 법당안에 계시는 호법선장님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몇시간이나 흘렸을께 절집산중에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시각인데 미풍이 지나가듯 치미미 풍경소리가 덩그랑 덩그랑 밤의 적막을 깨트렸다. 무심코 고개를 들고 상단을 바라보았다. 하늘하늘 타고있는 촛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초를 꽂아놓고 기도도 시작했는데 절반이 닳았으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순간 하늘거리는 촛불속에서 부처님의 상호가 울연히 나타났다. 내 눈에도 부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에야! 네가 무척 힘들겠구나' 하는 소리로 들렸다.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한 인자한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참았던 내 눈에서도 눈물이 빙그르르 돌면서 염주위로 뚝뚝 떨어졌다. (계속)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전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전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전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ASH(느릅 원목) ■ 규격 가로 720 x 세로 340 x 높이 320 (단위:mm) ■ 가격 8만5천원

■ 구입문의 -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 (http://mall.buddhapia.co.kr)

권 佛子반야반지 권

불자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장년(正道),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毅力), 행력(行力), 참력(懺力), 감력(感力), 자력(持力), 복력(福力), 덕력(德力), 변력(變力), 색력(色力), 상력(象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력(神力), 총발력(叢發力), 향발력(興發力)

■ 產品名 반야반지 ■ 재질: 금, 큐빅(18K, 14K-1.5톤) ■ 가격: 18K-W 130,000, 14K-W 120,000 ■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쪼그라들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는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다진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문양으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틀표 포함

접등과 조립등은 불·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접 등

장엄팔각등은 풀림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 ① 도솔락의상 도솔정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 비림강생상 불비나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 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모습 ④ 율유상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 출산수도상 설전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 수려행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향복시키는 모습 ⑦ 계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는 모습 ⑧ 영림법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자비충만 일체법계)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안법일체법계)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200원

조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는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홀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1,840원